

37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(봉일 455)



1. 주 안에 있는 나에게
 2. 그대 주를 찬양하며
 3. 내 주를 찬양하며
 4. 내 주를 찬양하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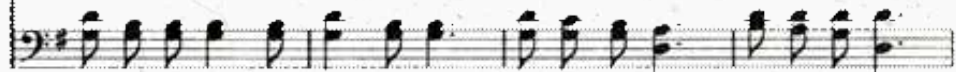
심전 내 그
 자 날 공 나
 가 의 필 라
 밀 한 함 가
 애 숨 을 기
 나 변 아 까
 아 하 시 지
 가 여 고 는
 내 내 늘 들
 집 노 채 보
 을 래 위 호
 풀 되 주 하
 었 었 시 시
 내 내 내 내



후렴



주님을 찬송하며
 할렐루야 할렐루야



내 앞길 멀고 험해도
 주님만 따라가리



2026년

설

가정예배
 순서지



기쁨의교회
 CHURCH OF JOY



목 도 시편 95:1~3 (가족 중에서 한 분이 대표로 낭독합니다)

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
즐거이 외치자 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
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3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
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

신 앙 고 백 사도신경

전능하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
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
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
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
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
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
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
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
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
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

찬 송 “주 안에 있는 나에게” (새찬송가 370장)

기 도 (가족 중에서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합니다)

말 씬 시편 127:1~2

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
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
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
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
는 잠을 주시는데다

설 교 “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”

오늘 말씀에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, 집을 세우는 자, 성을
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 계신다고
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.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
던 것은 시인의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
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.

삶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, 분주한 일상 속에서, '내 힘으로
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였다'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. 그러나 오
늘 말씀처럼 '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신 분'은 하나님
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.

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,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. “그러
므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다” 우리가 지난 날
들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수고하여 **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은
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.** 하나님께서
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.

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, 우
리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합시
다. 그리고 서로 은혜를 나누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우리 가
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나눔
가족 각자, 지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나누
어봅시다. 그 나눔이 끝날 때마다 **“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
남이십니다.”**라고 함께 고백합시다.

주 기도문 다같이

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
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
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
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
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
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
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
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